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서울시 보건위생



이곳은 서울시민의 모든 편의를 위해 봉사하는 서울시청.

“관”이 주는 엄격함, 웅대함의 일반적 인 통념을 무시하듯 처음 보는 사람이면, “설마 저게 시청건물일까”하고 반문할 만큼 평범한 건물이다. 좁지않은 주차장에 뽁뽁히 들어선 차들, 민원실을 찾은 수많은 서울시민 등등을 보면서 그야말로 이 조국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 즉 국민들의 평범함이 자유로이 숨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어야 함을 새삼 느낀다.

◀ '88년은 AIDS 감염예방, 성병관리, B형 간염예방, 그리고 각종 예방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具明子씨.

古家の 계단을 올라 기자가 찾은 곳은 서울시 보건사회국 보건위생과이다.

적지않은 사람들이 좁은 장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참으면서 자신의 맡은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속에서 방역계 보건기사 具明子씨(38세)를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안경너머로 날카롭게 빛나는 그녀의 눈, 그리고 반가운 웃음을 마주 대하는 순간 그속에 넘쳐 흐르는 따뜻함을 느낀다.

『전 별로 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찾아 오시니 좀 부끄럽네요. 모두가 제게 주어진 일일 뿐인데…….』具明子씨의 겸손한 첫마디다.

— 현재 맡고 계신 일은?

『주로 만성전염병 관리에 관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병, 기생충, 나병 등이죠.』

具明子씨는 보건분야에 몸을 담은 지

해서도 보건사업은 중요합니다.”

계 보건기사 具明子씨

16년이 되었다고 한다. 그 연수가 말해주는 만큼 그녀는 그 분야에서 베테랑으로 통한다.

그녀와 건협이 관계를 갖게된 것은 그녀가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부터였다고 한다. '70년대 후반까지 심각한 문제였던 기생충만연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된 그녀가 지역주민의 기생충 검사를 적극 추진하면서 밀접해지기 시작했다.

—'87년에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87년은 정말 바쁜 한해였습니다.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만연되는 급성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해야 했으니깐요. 그리고 특히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이 AIDS였죠. 건협이 지난해에 AIDS 상담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AIDS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8년은 우리 보건계에 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국제적인 올림픽행사가 열리게 되면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AIDS 감염예방, 성병관리, B형간염예방, 그리고 각종 병역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녀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은 특수업태부에 대한 성병사업이다.

그녀는 건협이 특수업태부 성병관리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 사람이기도 하다.

『원래 2곳이었던 성병관리소가 현재는 4개 지역으로 늘어났죠. 덕분에 성병감염율은 많이 저하되었지만 아직도 그러한 성병관리소를 필요로 하는 곳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전국적으로 그러한 성병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평하는 그녀는 섬세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평만큼 具明子씨는 그녀가 맡은 일에 관한 한 완벽에 가깝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그 바쁜 와중에서도 방역계 서무를 맡고 있다.

자녀들에게 좀더 잘해주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엄마의 일을 이해하고 밀어주는 아이들이 대견스럽다는 具明子씨는, 아이들과 함께 “탁구”를 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단다.

1남1녀와 부모님을 모시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具明子씨, 그녀는 현대를 살아가는 가장 멋진 여성이 아닌가 한다.